



유니베스트 에듀케이션

2015 년 겨울방학 미국 영어캠프

(아이다호 8 주, 서부 6/4 주, 동부 4 주)



(주) 유니베스트 에듀케이션

www.elitecamp.com / 02)556-0222

✓ 프로그램 개요

<아이다호 8 주>

캠프기간	2015 년 1 월 7 일 ~ 2 월 28 일
캠프장소	아이다호 주 소재 주거중심 도시의 기독교 사립학교
캠프대상	초 3 학년 ~ 중, 고생
참가비용	885 만원 (항공료 별도)
숙박형태	현지 중산층 자원봉사 홈스테이

<서부 6 주>

캠프기간	2015 년 1 월 7 일 ~ 2 월 16 일
캠프장소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주거중심 도시의 기독교 사립학교
캠프대상	초 3 학년 ~ 중, 고생
참가비용	745 만원 (항공료 별도)
숙박형태	현지 중산층 자원봉사 홈스테이

<서부 4 주>

캠프기간	LA 투어: 2015 년 1 월 7 일 ~ 2 월 1 일 IVY 투어: 2015 년 1 월 7 일 ~ 2 월 3 일
캠프장소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주거중심 도시의 기독교 사립학교
캠프대상	초 3 학년 ~ 중, 고생
참가비용	LA 투어: 575 만원 (항공료 별도) IVY 투어: 625 만원 (항공료 별도)
숙박형태	현지 중산층 자원봉사 홈스테이

<동부 4 주>

캠프기간	2015 년 1 월 7 일 ~ 2 월 3 일
캠프장소	보스턴 앤도버 소재 명문 사립학교
캠프대상	초 3 학년 ~ 중, 고생
참가비용	645 만원 (항공료 별도)
숙박형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엄선된 홈스테이

* 상기 비용은 인천공항 출, 입국 기준요금이며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가격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특징

정규 수업참여	단순한 영어학습이 아닌 현지 학생이 되어 정규학교 수업에 직접참여
방과 후 ESL수업	정규수업 외에도 방과 후 별도 ESL수업 진행으로 영어실력향상 극대화
사랑이 넘치는 홈스테이	학교 및 교회의 추천을 받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엄선된 사랑이 넘치는 홈스테이 가정에서 생활, 미국 문화체험
다양한 미국 문화체험	인근 명소는 물론 스키캠프 (아이다호), 경찰서, 소방서, 젤리공장 (서부), 박물관 견학 등 미국 문화 직접 체험
LA 또는 IVY리그투어 (서부 4주 만)	- LA투어: 꿈과 희망의 나라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 관광 - IVY투어: 세계 명문대학들을 탐방하며 미래의 꿈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

✓ 프로그램 일정 – 아이다호 (8 주)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7	1/8	1/9	1/10
			인천출발, 미국도착 호스트 가족과만남	정규수업 (8:30~3:00) 오후 ESL 수업	인근 명소 투어	트리플 플레이 (미니골프, 카 트, 볼링 등)
1/11	1/12	1/13	1/14	1/15	1/16	1/17
Sunday School 호스트 가족과 함께	정규수업 (08:30~3:00)				스키캠프	호스트가족과 함께 (친지방문, 영화관람, 등)
	Workbook	오후 ESL수 업	피자 만들기	오후 ESL 수업		
1/18	1/19	1/20	1/21	1/22	1/23	1/24
Sunday School 호스트 가족과 함 께	마틴 루터 킹 데이 (인근 종일 관광)	정규수업 (08:30~3:00)			인근 명소 투어	놀이동산, 한국음식
		오후 ESL수 업	우체국 견학	오후 ESL 수업		
1/25	1/26	1/27	1/28	1/29	1/30	1/31
Sunday School 호스트 가족과 함께	정규수업 (08:30~3:00)				스키캠프	호스트가족과 함께 (친지방문, 영화관람, 등)
	도서관방문	오후 ESL 수업	Talent Show 연습	오후 ESL 수업		

2/1	2/2	2/3	2/4	2/5	2/6	2/7
Sunday School 호스트 가족과 함께	정규수업 (08:30~3:00)				인근 명소 투어	주말 액티비티
	광산투어	오후 ESL 수업	카벨라스 방문	오후 ESL 수업		
2/8	2/9	2/10	2/11	2/12	2/13	2/14
호스트 가족과 함께	정규수업 (08:30~3:00)				스키캠프	호스트가족과 함께
	스카이하이	오후 ESL 수업	하키경기 관람	오후 ESL 수업		
2/15	2/16	2/17	2/18	2/19	2/20	2/21
호스트 가족과 함께	정규수업 (08:30~3:00)				인근 명소 투어	호스트가족과 함께
	영화관람	오후 ESL 수업	경찰서 견학	오후 ESL 수업		
2/22	2/23	2/24	2/25	2/26	2/27	2/28
호스트 가족과 함께	정규수업 (08:30~3:00)				한국으로 출발	인천 도착
	과학관 견학	오후 ESL 수업	탤런트 쇼	수료식		

** 상기 일정은 8주 샘플일정이며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일정 - 서부 (6 주/4 주)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7	1/8	1/9	1/10
			인천출발, 미국도착 홈스테이 가족과 만남	정규수업 오후ESL수업	정규수업	호스트가족과 함께 (인근 명소 방문)
1/11	1/12	1/13	1/14	1/15	1/16	1/17
Sunday School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샌프란시스코 투어	호스트가족과 함께 (친지방문, 영화관람, 등)
		오후 ESL수업	경찰서 견학	오후 ESL수업		
1/18	1/19	1/20	1/21	1/22	1/23	1/24
Sunday School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마틴 루터킹 데이 (인근 종일 관광)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젤리벨리 공장 투어	호스트가족과 함께 (쇼핑, 영화 관람, 등)
		오후 ESL수업	과학관 견학	오후 ESL수업		

1/25	1/26	1/27	1/28	1/29	
Sunday School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LA / IVY 투어로 출발!	
		오후 ESL수업	Talent Show 수료식		

➤ LA 투어: (4주) 2015년 1월 29일~2월 1일 / IVY투어: (4주) 2015년 1월 29일 ~ 2월 3일

**** 상기 일정은 4주 샘플일정이며 6주는 이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세부 일정은 학교 별로 다를 수 있으며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일정 – 동부 (4 주)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7	1/8	1/9	1/10
			인천출발, 미국도착 호스트 가족과 첫 만남	정규수업 쇼핑몰 투어	정규수업 오후 ESL 수업	볼링, 롤러 / 아이스 스케이팅
1/11	1/12	1/13	1/14	1/15	1/16	1/17
호스트 가족 과 함께	정규수업 오후 ESL 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필립스 아카데미 투어	정규수업	정규수업 오후 ESL 수업	필립스 오케스트라 공연관람
1/18	1/19	1/20	1/21	1/22	1/23	1/24
호스트 가족 과 함께	Martin Luther King Day	정규수업	정규수업 우체국 견학 (부모님께 편 지)	정규수업	정규수업 오후 ESL 수업	블루맨 공연. 보스턴 시내 투어
1/25	1/26	1/27	1/28	1/29	1/30	1/31
호스트 가족 과 함께	정규수업 오후 ESL 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소방서 견학	정규수업	IVY 투어 시작	

**** 상기 일정은 4 주 샘플일정이며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aily Schedule

08:30 까지 학교 도착~! 지각하는 사람 No No No~!!!

09:00 ~ 10:20 정규 수업 참여~

10:20 ~ 10:40 기지개 한편 짹~ 펴고! 신나고 즐거운 쉬는 시간~



10:40 ~ 12:00pm 아이들의 눈이 반짝! 다시 집중하며 수업으로 Let's 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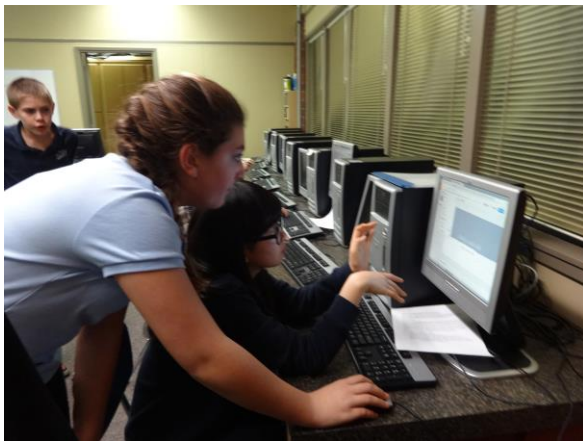
12:00 ~ 01:00pm 기다리고 기다리던 맛있는 점심시간~!





01:00 ~ 01:50 pm 오후 수업도 화이팅!!!

02:00 ~ 02:50 pm 마지막 수업까지 열심히!! 조퇴시간 후 하교



캠프 말미에는 캠프기간 동안 친 가족과 친구가 되어주신 홈스테이 가족과 학교 친구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의 장기에 담아 전하는 “탤런트 쇼”가 진행됩니다!

<Talent Show 의 예>

- 피아노, 플룻, 오카리나, 리코더 등 악기 연주.
- 태권도, 쌍절곤 시범, 가라테 등 무술 시범
- 감사편지 낭독, 자작시 낭독, 등

“장기가 없는 친구는 어떻게 하나구요~? 잘 못하면 어떻게 하나구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니깐요~~ ^__^



✓ Workbook

다양한 주제의 일기와 작문을 하면서 창의적 사고력 키워주는 숙제

Workbook은 레벨에 따라 4단계로 나뉘어 저서, 본인의 실력에 맞는 숙제 집으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캠프에서 학생들이 하고 있는 '영어 일기쓰기'는 작문 실력을 키워 주는 좋은 숙제이나, 실제 캠프에서 많은 학생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났다. 학교에 갔다. 친구들과 재미있었다'는 식의 똑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작문함으로써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 반복과 무조건 몇 줄 이상을 채우기 위하여 홈스테이 가정과 대화하는 시간을 줄이는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여 Workbook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읽기와 그와 관련한 작문, 매번 새롭게 주어지는 주제에 관한 작문을 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숙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홈스테이 가정과 대화 할 수 있도록, 홈스테이 부모님께 인터뷰하기, 레시피 (Recipe) 여쭙고 쓰기 등의 적극성을 키워 주는 숙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onday	Date: Jan 11	Signature	
Today's Homework: * Write about today.	Homestay Parents: <i>Selena</i>	Teacher: <i>[Signature]</i>	

★ Write.

◆ You are in a new country now!

- What did you do today? What was the most interesting thing? and Why?

I went to the Canada. I took an airplane. It was very big.
I met many, many friends today. Everybody was kind. But, I didn't like the young boy. He sat next to me. I watched many, many movies airplane. And there are 2 teachers in camp.

- What was the best food on the airplane? Do you think you would like to eat it again?

I ate spaghetti. My friend (she is Emily) eat rice. We ate together. I think airplane food is good. Emily says "Rice is not good in airplane." But, I like airplane food. And, I think airplane food. I want to eat again.


- How is the weather here? Do you like the weather here? Why? Why not?

It is very warm, not cold. My homestay mom say, "It isn't a weather winter!" I think I like Canada weather.

- What will you do tomorrow? What do you want to do with your homestay family?

I will go to school tomorrow. My teacher and my friend will go to school, too. My homestay mom will go to school with me. My homestay brother David goes to same school. I am so happy! I want to eat dinner with my homestay family.

Excellent Job!!
You expressed very well what you felt on your first day. Keep up the good!



✓ Evaluation

영역 별 취약점과 강점, 향후 학습 방향을 제시해 주는 평가서

캠프기간 동안 학생의 학습 성향과 실력을 파악하여, 영어 학습 부문에서 강점과 취약 부분을 알려주며 이를 바탕으로 캠프가 끝나고 귀국한 후 좀 더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할 분야와 학습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STUDENT EVALUATION			
Date:		Student name:	Teacher:
Grade	Achievement of the Curriculum Expectation		
A ~ A+	The student has demonstrated the required knowledge and skills. Achievement exceeds the standard of the curriculum expectation.		
B ~ B+	The student has demonstrated most of the required knowledge and skills. Achievement meets the curriculum expectation.		
C ~ C+	The student has demonstrated some of the required knowledge and skills. Achievement approaches the curriculum expectation.		
D ~ D+	The student has demonstrated some of the required knowledge and skills in limited ways. Achievement falls much below the curriculum expectation.		
R	The student has not demonstrated the required knowledge and skills.		
Section	Grade	Strengths/ Weakness	
Grammar & Vocabulary			
Listening Comprehension			
Pronunciation & Speaking			
Communication Skills			
Reading Comprehension			
Reading Performance			
Composition			
Writing Skills			
Recommendation for Future study:			
E - Excellent G - Good S - Satisfactory N - Needs Improvement			
Class Participation			
Homework Completion			

<Sample>

Student Evaluation			
Date: Feb 3, 2010		Student: Emma	Teacher: Andrew
Grades	Achievement of the Curriculum Expectation		
A ~ A+	The student has demonstrated the required knowledge and skills. Achievement exceeds the standard of the curriculum expectation.		
B ~ B+	The student has demonstrated most of the required knowledge and skills. Achievement meets the curriculum expectation.		
C ~ C+	The student has demonstrated some of the required knowledge and skills. Achievement approaches the curriculum expectation.		
D ~ D+	The student has demonstrated some of the required knowledge and skills in limited ways. Achievement falls much below the curriculum expectation.		
R	The student has not demonstrated the required knowledge and skills.		
Section	Grade	Strengths/ Weaknesses	
Grammar & Vocabulary	B	Emma finds grammar rules a bit boring. Although she knows some grammar rules naturally, she does not give her effort fully to adopt new grammar rules. In addition, she needs to work on her vocabulary skill more.	
Listening Comprehension	B+	Emma usually responded appropriately when she is told some oral news. The listening class was highly verbal, visual and kinesthetic program, and she showed great ability in the class.	
Pronunciation & Speaking	A	In regards to pronunciation & speaking, Emma was one of the best students in the class. Other students enjoyed her speech when she gave a speech about "Global warming". And her pronunciation was understandable.	
Communication Skills	A+	When Emma communicates with other her classmates or me, she effectively created appropriate sentences, and she knows how to use her sense of humor as well. She spoke very naturally all the time.	
Reading Comprehension	B	Emma usually responded appropriately when I ask questions about a text she read. She demonstrated good understanding of the main vocabulary. She is encouraged to look up dictionary a more.	
Reading Performance	B+	Emma created well developed presentation program that focused on one aspect of medieval times. She needs to increas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supporting details when delivering a text.	
Composition	B	Emma confidently analyzed text by explaining how setting and character descriptions contribute to the meaning, and she expressed her feelings very well after she read the storybook "The Paper Girl".	
Writing Skills	B+	Emma was able to write a well developed response about an event in her life using a storybook "The Paper Girl" that included captions and drawings. She was able to identify and order the main idea effectively.	
Recommendation for the future study: Emma is very much talented in speaking English. Her verbal skill is outstanding, and it is interesting to see her communication skill in the class. However, she is highly encouraged to adopt new vocabulary and work on grammar study in the future.			
E - Excellent G - Good S - Satisfactory N - Needs Improvement			
Class Participation		Not only she has never absent in our class, she participated in every class very much actively.	
Homework Completion		She did great job in both independent work and group work, and completed 'unit test' except one night when she was ill.	

✓ 지역소개

“천혜의 자연, 호수, 감자 그리고 백인으로 대표되는 아이다호 (Idaho)!”

아이다호 주는 미국 북서부에 위치한 산악 주로써 주도는 보이시(Boise)입니다. 인구는 백만 명 가량인데 이중 89.1%가 백인이며 한국인은 약 1,67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출처 2010 Census)



날씨는 겨울은 평균 섭씨 -5도, 여름은 섭씨 24도 정도로 한국과 비슷하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산지는 숲으로 덮여 있으나 산간분지는 건조한 편이고 스네이크강 상류지방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포테이토칩의 대부분이 아이다호 감자일 정도로 감자가 아주 유명하며 주요산업은 농업 및 목축업으로 소맥, 건초, 사탕무, 감자, 사과 등의 지배와 면양, 육우, 젖소의 사육이 활발합니다.

프로그램 진행되는 곳은 **Post Falls** 라는 곳으로 쿠티나카운티에 있는 도시입니다.

미 서북부 최고의 절경으로 유명한 코들레인 호수를 인근에 두고 있는 Post Falls는 깨끗하고 조용하며 너무나 안전하여 밤 늦게 야외활동을 하여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최저 수준의 한국비율과 백인 위주의 주여서 슬랭이나 강한 억양 문제가 없어 영어를 배우며 미국의 선진 교육 시스템을 체험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백인위주이나 호주나 기타 국가처럼 백인우월 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며, 대도시가 아닌 시골 같은 소도시여서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하고 정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California) -연중 아름다운 날씨의 the Golden State-”

태평양을 끼고 있고 한국 면적의 약 2배인 캘리포니아 주는 살기 좋은 자연과 날씨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캠프가 진행되는 샌프란시스코 근방 지역은 여름에도 지나치게 덥지 않고, 겨울에도 너무 춥지 않아서 어느 계절에나 지내기에 매우 쾌적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산맥과 해안, 국립공원들이 많아서 거주민들 이외에 관광객이 항상 붐비는 지역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에서도 **백인 거주 중심의 안전한 커뮤니티에서 캠프를 진행**하고, 관광 일정은 대도시에서 진행함으로써 **안전한 캠프와 재미있는 투어**를 모두 학생들이 체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로다이 (Lodi)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산 호아킨 카운티에 위치한 작은 도시 로다이 (Lodi)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도 너무 춥지 않은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주 날씨의 영향을 받아 영어캠프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러한 날씨의 수혜를 받아 와인이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기도 합니다. 매년 3,4월 로다이 포도 페스티벌이 열릴 정도로 와인산업은 로다이 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율 낮고 안전하기로 소문난 로다이 시는 재미있게도 이탈리아의 동명 도시 Lodi (로디)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로다이 스테이션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육의 도시 보스턴 (Boston)!”

보스턴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주도이며,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최대 도시이며 이 지역 경제 및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1630년, 영국의 청교도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해 시작된 보스턴은 이후 18세기 보스턴 학살, 보스턴 차 사건 과 같은 미국 독립 혁명의 중요한 사건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미국 독립 이후 보스턴은 주요한 항구, 제조업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현재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보스턴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은 미국 최초의 공립학교인 보스턴 라틴 스쿨 (1635년), 미국 최초의 지하철망 (1897년)이 생긴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 최초의 공립학교 보스턴 퍼블릭 라틴어 학교가 설립된 다음해에는 당시 교외였던 케임브리지에 미국 최초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이 창설되었습니다. 보스턴은 시내 및 주변 지역에는 많은 종합 및 단과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고등 교육의 중심지이자, 의료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또한 보스턴 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외 유명한 관광명소로는 보스턴 다운타운에 위치한 퀸시마켓 (Quincy Market), Freedom Trail에 위치한 파크 스트리트 교회 (Park Street Church), 보스턴 과학박물관, 보스턴 커먼 (Boston Common), 퍼블릭 가든 (Public Garden) 등이 있습니다.

✓ 사랑이 넘치는 크리스천 자원 봉사 홈스테이

“학생과 최상의 매치를 이루는 다년간 경험으로 검증된 홈스테이”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이 되어 주실 홈스테이는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엄선된 자원 봉사 홈스테이 입니다. 홈스테이 선정 시, 본사와의 긴밀한 협력 및 협의 하에 자원한 학교 학부모와 교회 관계자들이 중에서 선발하게 되며, 범죄기록 Check, 현지 학교 담당자 방문 인터뷰, 등 면밀한 검증 절차를 걸쳐 선발하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 적응이 어려운 우리 아이들에게 **자상한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며** 소중한 가족이 되어 줄 가정들로 엄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등·하교는 물론, 다양한 미국의 가족 문화(생일파티, 캠핑, 주말야외활동)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잊지 못할 문화 경험과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캠프 경험자들이 앞다투어 미국영어캠프의 최대 장점으로 손꼽아 이야기 할 정도로 홈스테이는 본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자랑 거리** 입니다.



✓ 학교소개

“제네시스 프렙 아카데미 (Genesis Preparatory Academy)”

- 아이다호 주 신흥 명문 크리스천 학교

제네시스 프렙 아카데미 (Genesis Preparatory Academy)는 NWAC (Northwest Accreditation Commission)의 인가를 받은 미 북서부지역 신흥명문사립학교로 2005년개교하여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ACSI (국제기독교학교협회)의 멤버인 비영리기독교학교로, 우수한 전문 교사진이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사랑과 인내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가슴이 따뜻한, 꿈과 소양을 갖춘 인재들 양성하는 것을 학교의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사와 다년간의 캠프 경험으로 한국에 정통하신 교장선생님을 필두로 정말 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현지 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학교입니다.



“마린 크리스천 아카데미(Marin Christian Academy)”

-다년간의 캠프 진행으로 검증된 프로그램과 교사 진

마린 크리스천 스쿨은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소속의 명문 사립 크리스천 학교입니다. 인근에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사 진과 검증된 커리큘럼으로 학업의 우수성을 강조 하여 왔으며 또한 모든 교사들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인내심과 사랑으로 대함으로서 학업과 인성을 골고루 갖춘 인재들 양성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 이념으로 삼아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본사와 함께 영어 연수를 진행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는 명문 사립 크리스천 학교 입니다.



“세인트 피터 스쿨 (St. Peter Lutheran School)”

-가족 같이 따뜻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Lodi 지역 명문 사립학교

세인트 피터 스쿨 (St. Peter Lutheran School)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1시간~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Lodi란 곳에 위치한 지역 명문 사립학교 입니다. ACSI 소속으로 약 200명의 학생들이 현재 이 곳에서 수학 중이며 전 학교 학생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생활을 할 정도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전통적인 교육법과 새로운 교육 트렌드를 적절히 조합하여 모든 학생들이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 이 외 다른 샌프란시스코 인근 명문 사립학교에서 캠프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인트 아구스틴 스쿨 (St. Augustine School)”

- 보스턴 지역 명문 사립학교

1914년 개교한 St Augustine 교회의 Grammar 학교를 전신으로 하고 있는 본 학교는 이 후 1918년 St. Augustine School로 교명을 바꾸고 지금까지 근 100여 년의 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해 온 지역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 중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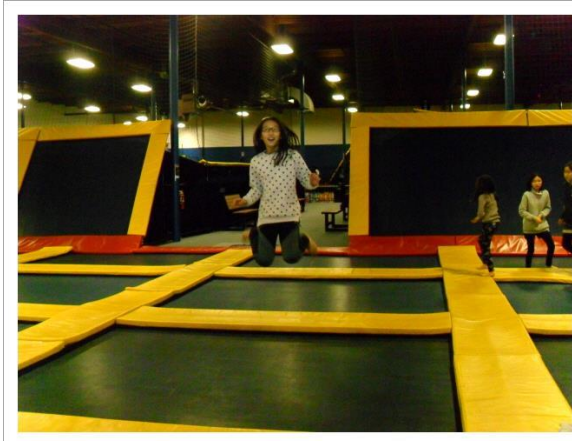
학생 개개인의 지적, 사회적, 개인적 성장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하면서도 강단 있는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총 재학생 수 10% 미만의 국제학생만이 재학하고 있으며 홈스테이는 한국 학생과 문화에 관심이 많은 중산층 이상의 백인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관계자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규 수업과 클럽활동 등을 통해 영어능력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 액티비티

주요 액티비티 장소 (아이다호)

신나고 재미있는 현지 체험: 스키캠프, Triple Play, 광산투어, 쇼핑, 하키 관람 등



***상기 장소는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액티비티 장소 (샌프란시스코)

신나고 재미있는 현지 체험: 샌프란시스코 투어, 과학관, 소방서, 젤리공장 등



***상기 장소는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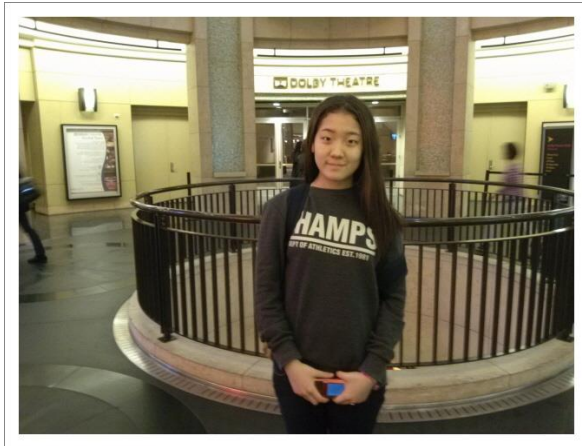
주요 액티비티 장소 (보스턴)

보스턴 시티 투어 및 다양한 현지체험 액티비티: 하버드, 퀸시마켓, 보스턴 과학박물관, 등



✓ LA 투어

➔ 할리우드: 아카데미상 시상의 장소



➔ 디즈니랜드: 세계 최대 테마파크



➔ 유니버설스튜디오: 전 세계 영화의 산실



***상기 장소는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IVY리그 투어

➔ 대학 견학: 하버드, MIT,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U-Penn 등 MIT 등



➔ 동부 관광: 뉴욕 시내 관광, 자유의 여신상, 자연사박물관, 등



✓ 부모님은 이런 것 궁금해 하십니다.

⇒ 아이들이 주로 어떤 음식을 먹게 되나요?

아침은 주로 시리얼, 점심은 샌드위치, 주스, 과일을 홈스테이 가족이 싸주게 됩니다. 저녁은 요리를 해서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대부분 현지 음식을 먹게 됩니다. 한국음식을 그리워할 아이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1번 한국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 홈스테이 가정 선정 기준과 가정환경이 궁금해요

학교 추천을 받은 중산층이상의 가정으로 모두 크리스천 자원봉사 가정입니다.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아이들 성향을 미리 파악한 후에 2인 1가정으로 배치됩니다. (1인 1가정도 가능)

⇒ 여자아이라 더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성문화 개방이 더 되어있는 나라이기에 많은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역선정 시 고려하는 가장 첫 번째가 안전입니다. 이는 홈스테이 선정 시에도 똑같이 적용 됩니다. 또한 홈스테이 선정 과정에서 철저한 심사를 거치고 있어 단 한번도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었습니다.

⇒ 영어를 잘 못해도 참가가 가능한가요?

영어능력이 뛰어나면 좋겠지만, 영어가 잘 되지 않는 학생들도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온 후 한국에서 영어를 더 열심히 하는 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영어실력보다는 예의 바른 학생의 태도와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마음가짐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 아프면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국제적인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 병원에 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원비는 부모님께서 부담하신 프로그램 비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감기나 간단한 질환에는 휴식이나 비타민 처방 외 특별한 약 처방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님께서 이해 하셔야 합니다.

◇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 ⇒ 3년 이상 영어공부를 했던 학생
- ⇒ 미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런 영어습득환경을 원하는 학생
- ⇒ 영어학원을 오래 다녀도(영어유치원부터) 실력이 정체기인 학생
- ⇒ 믿을 수 있고, 안정된 홈스테이를 찾는 학생
- ⇒ 미국의 크리스천 가정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학생

참가 전 이렇게 준비합니다.

교육전문가와 학생상담

교육전문가와 학생의 밀착 면담 - 학생의 생활태도, 성격, 참가목적, 건강상태, 식습관, 영어학습정도, 홈스테이 당부사항등 세밀한 상담을 통해 사전 준비는 물론 캠프기간중 학생관리를 위한 탄탄한 기초 준비과정

철저한 영어테스트

해외생활의 기본인 Speaking은 물론 Listening, Reading, Writing Test를 통한 학생의 영어수준 완벽 파악

철저한 사전준비

- ♣ 홈페이지 사전학습 - 이전 참가 캠프앨범, 안솔교사일기, 동영상들을 미리 보아 참가 프로그램의 모습을 미리 알아보기
- ♣ 매일 진행되는 바른생활 체크리스트 : 홈스테이 생활 사전 준비
- ♣ 지역단위 오리엔테이션 - 목적의식 다지고, 준비물 꼼꼼히 챙기기



귀국 후 이렇게 안내 됩니다.

01. 입학사정관제 대비 자료 및 영어학습 진단, 학생별 캠프앨범

각 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수료증 및 참가기간 중 학습내용과 개인별 강점, 취약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Evaluation Card와 함께 개인앨범을 만들어 주어 오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게 합니다.

02. 조기유학 및 다양한 해외 교육 컨설팅



캠프 후기

권대혁 학생 어머니님 (2014 년 여름 미국캠프 참가자)



처음에 남편이 대혁이 미국캠프를 보내자고 했을 때는 중 3 인데 다른 공부도 하지 못하고 ...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한 달 동안이나 캠프를 보내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 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꼭 보내고 싶으면 차라리 조금 짧게 국내 영어캠프를 보내자고 했지요. 하지만 우리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늦기 전에 보낸 것이 그래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다녀와서 많이 의젓해지고 성장한 것 같습니다. 기대만큼 영어실력이 늘거나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제 아이의 마음속에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한 달 동안 동행하시면서 부모처럼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사진으로 올려주신 인솔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문영 학생 어머니님 (2014 년 겨울 미국 스쿨링캠프 참가자)



미국에 이민 가 있는 친구 네 다녀온 언니를 보고 있던 저희 작은딸이 자기도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헉!!!! 어디 가래도 귀찮다고 안가고...학교 갈 때도 빈 가방만 둘러매고 다니던...

어떠한 의지도 열정도 없어 보이던 저의 아이가...보내달라는 겁니다...

그 의지 하나로도 감동이 넘쳐 부랴부랴 후보로

신청하여 보냈습니다.

역시나...처음엔 힘들어 하는 게 보이더군요....말도 안 통하지... 공부로는 대화할 무슨 재료도 머리속엔 없지... 저러다 갔다 와서...오히려 더 의기소침해지는 것 아닌가...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녀온 후 저에게 내년에 또 보내줄 거냐고 하더라고요... 배우고 느낀 게 많으면서 할 일이 많다는 군요... 그렇게 고등학교에 입학한 저희 딸이 헉!!!! 학교갈 때 가방 안에 책들이 짹!!!차있고... 지각하면 안 된다고 일찍 일어나고...책상에 앉아 숙제를 합니다...^^

언니가 배우는 원어민 교사가 오면 "헬로"도 "굿모닝"도 못해서 방 안에서 꼼짝도 안 하던 아이가 자기도 원어민 수업을 받겠다고 합니다...

저와 자주 대화를 하려 하고 누군가와 상의하기를 원하고...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웁니다.

아우~~~감사합니다... 유니베스트 미국캠프!!! 화이팅!!!입니다. 이 열정이 식기 전에 한번 더 보내려 합니다. ^^

함께한 친구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나중에 만나 웃으며 악수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하고 또 그렇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웃는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김문영 학생

이 캠프를 처음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 이유는 너무 먼 나라였고 영어 실력이 부족해 힘들 것 같아서이다. 그러나 한번 경험해 보라는 부모님의 권유로 왔는데, 안 왔으면 난 한국에서 좁은 물에서 물장구나 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캠프를 통해 많은 것을 보았다. 미국의 음식 문화라든지 그런 미국 문화를 배울 수 있었고 또 각 지역에서 모인 아이들과도 친해지며 사교성도 기르고 참는 것을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웠다! 이 뿐만 아니라 영어라면 입 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나였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과 부딪치면 'Sorry',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Thanks'라고 나오게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목표가 생겼다!

미국에 있을 동안 빨리 한국 가서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만 수만 번 들었고, 구체적인 것은 말하지 않겠지만 그 목표를 이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한마디로 **내 꿈을 이루는 다리가 되어준 것이 바로 이 미국 캠프이다.** 그렇다고 장담한다! 처음엔 한국이 그리고 가족도 그리워 마음고생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 그때 좀더 열심히 할 걸'하고 후회한다. 또 **호스트 패밀리가 내 가족같이 소중한다.** 겨우 한 달이지만 그 한 달 동안 **진정으로 대해주고 날 보살펴주셨다.**

난 기회가 생긴다면 버선발로 뛰쳐나와 다시 이 캠프에 참여하겠다고 말할 것이다.

서경진 학생 어머니님 (2013년 여름 미국 ESL 캠프 참가자)

설렘과 호기심으로 시작된 영어캠프는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부모 심정으로는 다소 부담이 있었고, 약간의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캠프 생활사진이 올라왔을 때는 조금 짠 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 올라오면서부터 안도의 마음과 다음날 사진이 기대되더군요.

실제로는 캠프생활보다 호스트 가정의 분위기와 외국인 가족들과의 소통 등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기우라는 것이 바로 사진으로 증명이 되더군요. 사실 우리 집보다 더 좋아 보이고, 아이도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안심이 되면서 오히려 미국의 풍습과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등을 몸으로 체화 하여 돌아왔으면 하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잘 보살펴준 유니베스트 캠프의 시스템 덕분이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금번 영어캠프가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되고, 또 좋은 추억 하나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둘째도 보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주 동안 잘 보살펴준 호스트부모님들께 먼저 감사 드리고, 유니베스트에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찬호 학생 어머니님 (2013년 여름 미국 ESL 캠프 참가자)

먼저 한 달 동안 고생하신 인솔 선생님 고맙습니다.

캠프를 보내면서 우리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가족과 장시간 떨어져 지내는 것이 처음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좋은 홈스테이 가족을 만나게 되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활동사진과 아이들의 생활을 꼼꼼하게 편지로 올려주셔서 마음 폭 놓고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호도 미국을 다녀와서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고 미국이 자기스

타일이라고 해서 잘 적응하고 잘 지내고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찬호가 **영어캠프를 다녀오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서 캠프를 보내길 참 잘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 지도 해 주신 선생님들의 덕분인 것 같고 선생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꾸벅~~~

박찬호 학생

처음 내가 미국에 왔을 때 자신감 보다는 걱정이 더 많았다. 이번 캠프는 나의 첫 영어캠프이고, 처음으로 한국을 떠나기 때문에 긴장을 더 많이 한 것 같다. 그런 **내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날 보며 반겨주는, 날 보면 입 꼬리를 올려주는 Host family와 친구들 덕에 잘 지낸 것 같다.** 그러면서 나도 먼저 다가서는 법을 배우고 더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었다.

친구들을 사귀니 영어로 문혀 살 수 있었다. 영어로 문혀 사는 게 좋았다. 친구들 Lyndsay, Aaron, Henna, Marchello, Hayden, Matt 등 고마웠다.

ESL 클래스에서는 좋은 버디를 만난 것 같다. 성격들이 다 쿨하고 재미있었다. Becca 선생님께서 앞장서주지 않으셨다면 끝까지 교실이 침묵했을 거다.

고마울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난다. 그 중 **가장 고마운 사람은 Host 아닐까 생각한다.** 내가 본 Host는 스케일부터 달랐다. 9남매부터 놀랐다. 너무나 다정다감한 부모님은 진짜 좋으시니 분이다.

이 작은 종이에 나의 모든 감정을 적을 수 없어 아쉽다. **길 줄 알았던 짧은 3주. 불편함이 많을 줄 알았던 너무 편안했던 Host house 생활. 나의 생각과 미래계획을 바뀌게 해준 IVY tour. 평생에 한번뿐인 첫 번째 캠프를 함께해준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며 끝을 내리겠습니다.**

나의 최고 중 하나인 생일파티를 아메리카여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영 학생 어머니님 (2013년 여름 미국ESL캠프 참가자)



영어캠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영어캠프를 보내 달라던 아이를 먼 곳에 보내는 결정을 하기 어려워 미루다 이번에 미국으로 가는 영어캠프 내용을 보고 보낼 맘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정을 한 후에도 긴 시간 윤영이와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하니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와서 걱정은 좀 줄어 들었지만요. 그렇게 미국

걱정했던 거와는 달리 첫날부터 선생님의 인솔일기와 사진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맘은 한결 편안해졌고 윤영이와 통화를 한 후에는 그런 걱정은 사라 졌습니다. 4 주내내 선생님의 자세한 그곳 이야기에 저도 그곳에 함께 있었던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윤영이는 한번도 외국에서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맘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살아도 괜찮을 거 같다며 그곳에서 호스트가족과 학교에서 만나 버디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 모두 좋았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내내 미국 호스트집을 우리 집이라 표현을 하면서요....

3 주동안의 수업으로 영어실력이야 얼마나 늘었는지 사실 기대는 되지 않지만 **윤영이가 경험했을 미국생활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함께한 친구와 선생님들..... 그 추억만큼은 값진 선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집에 도착하자 말자 그곳에서 만나 친구들과 페이스북으로 안부도 전하네요. 돌아와서 다시 미국에 가고 싶다고 다시 미국호스트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윤영이를 보면서 **참으로도 행복한 방학생활을 보낸 거 같아 참 잘한 선택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탈없이 잘 보살펴주시고 지도해주시고 매일 그곳의 일과를 사진과 글로 저희에게 행복을 주신 인솔 선생님 정말 감사 드리고 윤영이 바램처럼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영어캠프에 참가를 시키고 싶네요.

박태섭 학생 어머니 (2013 년 여름 미국 ESL 캠프 참가자)



태섭이가 미국을 다녀 온지 벌써 일주일이지났다. 시차적응을 하기도 전에 태섭이는 개학을 하고 무척이나 바쁜 생활을 했다. 그러면서도 짜증 한번 안내는 태섭가 많이 변했구나. **기특하고 뿌듯한 맘을 감출 수가 없다.**

작년(초 3 학년)부터 미국캠프를 보내고자 계획을 했지만, 너무 어린아이를 미국이라는 먼 나라에 혼자 보낼 생각에 겁부터 나서 마음을 접었지만 **지금은 좀더 일찍 보낼걸 하고 후회 해 본다.**

올해는 꼭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여름 미국캠프를 문서를 확인하고 바로 준비에 들어갔다.

출발일 공항에 태섭이를 보내기 위해 도착하니 태섭이는 긴장되고 떨리지만 공항에 오면 기분이 좋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다가 헐 비행기 탑승을 위해 줄을 서는데 태섭이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걸 본 순간 그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멈추지 않았다.

도대체 영어가 뭐란 말인가!!! 먼 미국 땅에 아들을 혼자 보내면서까지 이렇게 해야만 하나!! 미국에 도착하여 처음 통화하고 "엄마 보고 싶어. 잠도 안 오고 집에 가고 싶어" 하는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미국 가서 데려오고 싶었다.

그렇게 2~3 일에 지나고 전화를 했더니 내가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적응을 잘 하고 있었다. 미국에서의 수업과 활동들을 하느라 무척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니 당연 엄마 아빠는 잊은 듯..... 엄마는 휴대폰에 샌프란시스코 시계를 저장하고, 매일매일 확인하며 전화할 시간만 기다렸는데.. 전화하면 홈스테이 가족 누나 형들과 숨바꼭질하고, 강아지랑 놀고 있고, 게임하고 운동하고 홈스테이 가족들과의 생활이 너무 즐겁다고 한다. 홈스테이 가족들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우리아이를 잘 챙겨 주고 적응기간에도 힘들 때 마다 기도하고 같이 염려 해주셨다고 한다. 아이가 혼자다 보니 사실 전화를 너무 자주해서 실례가 많았는데, 항상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 주시고 또 바꿔 주셨다.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드린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내게는 아주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홈스테이 가족 분들이 내 가족처럼 아주 가까워지고. 태섭이는 아직도 "마미"하며 전화를 자주 한다. 태섭이에게 아주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 준 것 같다. 매일매일 인솔 선생님께서 업데이트해주신 사진들과 일기를 읽다 보면 내가 미국 와 있는 거 같았다.

아이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열심히 올려 주신 인솔 선생님!! 아이들에게 한국 음식 준비해서 먹이느라 애쓰셨죠!!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항상 안전을 최고로 여기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해주시려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태섭이에게 다시 한 번 이런 소중한 추억 만들어 주고 싶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지윤 학생 어머니님 (2013년 여름 미국ESL캠프 참가자)



작년부터 큰아이를 보내자는 남편의 말에 딸아이를 멀리 혼자 보낸다는 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데, 올해 남편이랑 아이가 너무 원해 보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딸 가진 엄마로써 걱정만 한 가득 이었다.

그러나 OT와 출국할 때까지 직접 인솔하실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다. 아이가 출국할 때부터 귀국할 때까지의 모든 상

황을 자세히 글과 사진으로 남겨주셔서 마치 아이를 옆에서 지켜 보는 듯했다. 매일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매일 캠프일기를 정성껏 올려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영어 실력이 좋아지라고 보낸 것은 아니다. 그곳에서 아이 나름대로 무엇이든 느끼고 오면 된다는 기대로 보냈었다. 아이는 다녀온 뒤로 우선 생활 습관이 많이 변해있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자기 이부자리 정리하기, 차에서 안전벨트 매기, 동생에게 많은걸 양보하기, 영어로 된 영화 즐겨보기 등등 예전과 여러 가지가 변화되었고 생각이 부쩍 커진 것 같다.

딸아이가 미국에 있는 동안 주위 분들이 걱정되지 않냐고 하셨는데 정말 캠프 보내기 전의 걱정들은 한날 기우에 불과 했다. 그리고 보내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둘째도 좀더 크면 보내야겠다.

그리고 딸아이가 홈스테이 하면서 지냈던 가족들이 너무나 잘 대해주시고 잘 돌봐주셔서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긴다

감사합니다

최송화 학생 (2013년 여름 미국ESL캠프 참가자)



부모님의 권유로 오게 된 캠프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가장 좋았고, 호스트 가족들과 좋은 체험을 많이 해서 좋았다. 특히 레이첼 가족과의 캠핑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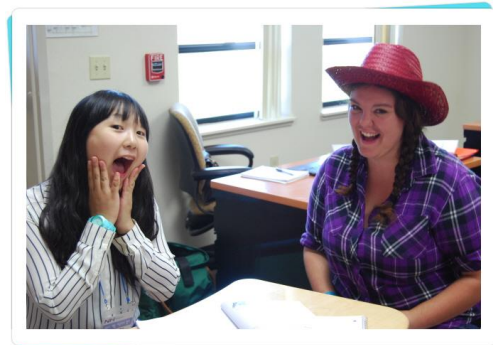
이번 캠프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캠프다.

어린 동생과 잘 지내는 법도 배웠고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가장 슬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영어는 문법은 전혀 늘지 않았지만 외국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 영어회화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호스트 가족이 조금 지저분했던 점이 좀 힘들었지만 호스트 엄마께서 주말마다 좋은 경험 많이 시켜주시고 끝까지 신경도 많이 써주셔서 참 고맙기도 하다. 그리고 정말 정말 힘들었던 점은 생각지도 않던 사람들과의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헤어지는 것이 너무 슬프고 많이 힘들었다.

그래도 다들 너무너무 고맙고 특히 선생님들과 잘 챙겨준 언니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많이 그리울 것 같다!

박인하 학생 (2013년 여름 미국ESL캠프 참가자)



이번 여행을 나에게 즐거움도 좋지만 배움이란 시간이 있었던 것 같다.

공주라는 좁은 도시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만 아니면, 내가 싫으면 그만. 싸우면 안보면 되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기적인 인하라는 아이가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 Jane 으로 와서 나의 실력, 경력, 백이라는 것 없이 처음으로 맞서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그런 새로운 기분이 좋았다. 또한 사과하고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한 배웠다. 힘들고 잠 오는 것들 사이에서도 웃음이 끼있었다. 이 또한 추억으로 가져갈 거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즐거움 뒤에는 아쉬움이 있다.

영어를 더 많이 써보지 못한 것들, 제대로 끝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버디들과, 선생님들과의 헤어짐. 이 모든 게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

나중에 정말 정말 기회가 된다면 Lodi 에 다시 와서 똑같은 host family, 그리고 버디들을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이 아쉬움도 그때까지 지속되어서 아쉬움도 추억으로 담아가고 싶다.